옛한글 풀이

이재호

2022년 2월 24일

- 1. 다음 단어를 조판하시오.
 - (i) 훈글
 - (ii) 나·랏:말쌋·미
 - (iii) 뮣즈] 골으샤딘
 - (iv) 혼저 옵서예
- 2. KTUG Wiki: 훈민정음언해 페이지에서 hunminjeongeum.tex을 컴파일하여 보시오.

완료.

- 3. 다음에 주어진 텍스트를
 - (1) pmhanguljamo 형식의 입력으로 변환하시오.
 - (2)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훈민정음 세로쓰기체"를 다운로드하여 이 폰트로 변환한 텍스트를 식자하시오. https://font.hancom.com/sub1_ 3.html

일일은 크계 시계쳐 예사람을 성각호고 가군을 정입호야 연자오다 공순이 호난마리 여보시요 전성의 무삼 은혜 씻쳐던지 이성의 부부되야 창기횡실 다 바리고 예모도 슝샹호고 여공도 심슷것만 무삼죄가 진즁호야 일점혜륙 업셔스니,육친무족 우리 신세 선영횡화 뉘라 호며 사후감장 어이하리 명산디찰의 신고이나 호야 남여간 낫귀드면 평성 한을 풀게시니 가군의 뜻시 엇더호오

4.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1925년 초판 출간 당시의 표기법과 띄어쓰기로 조판하 시오. 가로쓰기 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째에는 말업시 고히 보내드리우리다

寧邊에藥山 진달내쏫 아름싸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거름거름 노힌그쏫츨 삽분히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째에는 죽어도아니 눈물흘니우리다